

# 광주 47만명이 '백수'

## 비경제활동인구 1년새 1만명 늘어

### 광주전남지방 통계청 '10월 고용 동향'

불황의 여파로 아예 구직을 포기하고 '백수'로 보내는 광주의 비경제활동인구가 1년새 1만명이나 늘어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실업률도 '고공행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의 경우 취업자 증가폭이 3년8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은 등 국내 고용시장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비경제활동인구는 47만3천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46만3천명)에 비해 1만명(2.2%) 늘어난 것으로, 취업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20대가 급증세를 나타냈다.

이들 젊은층은 불황의 여파로 취업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아예 구직활동을 접고 사실상 '백수' 상태로 지내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광주는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속에서도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거듭하는 등 고용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주로 가사나 통학인구 등으로 구성된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률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광주의 실업률은 3.8%로, 전국 평균(3.0%)을 크게 웃돌았다. 또 이같은 실업률은 울산(4.2%), 대

구(3.9%) 등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다.

이에 앞서 광주는 지난 5~7월을 이어 9월에도 실업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올 들어 4번에 걸쳐 실업률 1위에 오른 바 있다.

광주는 또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8.6%로, 전국 평균(6.6%)을 크게 웃돌았다. 젊은층의 구직 포기나 급증하고 있지만 해당 연령층의 실업률 또한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시장 약화는 전국의 경우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달 전국의 취업자는 2천384만7천명으로, 1년 전보다 9만7천명(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같은 증가폭은 지난 2005년 2월

(8만명) 이후 3년8개월 만에 최저치로, 정부 목표인 20만명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취업자 급감은 불경기로 가파르거나 찬바람이 불던 채용시장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맞물리면서 고용위축이 심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또 연령대별로는 채용시장에 갓 나왔거나 한창 일할 나이인 20대와 30대의 취업자가 1년 전보다 각각 13만명, 3만6천명이나 줄었다.

이들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비경제활동인구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의 경우 전국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43만7천명) 가운데 77.1%(33만7천명)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 드세요.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와 (사)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광주시지회(회장 박모님)가 12일 광주 상무 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1등급 '태양광' 등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와 두부부침 시식회를 갖고 있다. <농협광주본부 제공>

# 광주·전남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여전

## 시행 3년째 ... 29건 적발 과태료 3억7천만원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제가 시행 3년째로 접어들었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은 66만원의 취득세를 아끼려다 무려 14배의 과태료를 내는 등 지난해 거래분까지 부과된 과태료가 3억7천만원을 넘어섰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한 단속 결과 허위신고 사례 12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9천333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는 2006년 실거래가신고제 시행 이후 총 29

건의 허위신고 사례가 적발돼 3억7천63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주는 북구의 토지 640㎡를 중개업자를 통해 6억3천만원에 거래한 뒤 당사자가 거래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전남에서는 영암군의 밭 1만4천608㎡를 1억2천390만원에 거래하고 8천911만원으로 낮춰 신고한 거래자들에게 각각 47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광주는 서구의 A아파트 85㎡(26평)를 1억5천600만원에 거래하고 9천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지난해 각각 93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매수자의 입장에선 허위 신고를 통한 취득세 절감액(66만원)의 14배를 물게 된 셈이다.

실거래가 허위신고는 대부분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가격을 낮춰서 신고할 경우 관 사람은 양도세를 줄이고 산 사람은 취득·등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위 신고로 적발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허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취득세의 3배(취득세의 6%)까지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금 절감액의 수 십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양항, 서유럽 물동량 확보 '청신호'

### CMA-CGM선사 9천TEU급 선박 7척 운항

세계적 선사인 CMA-CGM이 선박 7척을 투입해 광양항과 서유럽 항 사이를 잇는 노선을 운항하기로 해 물동량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따르면 CMA-CGM이 13일부터 9천TEU급 선박 7척을 투입해 광양항과 중국, 홍콩, 독일 함부르크 항을 잇는 FAL(French Asia Line)을 운항하고, 현대상선과 머스크사도 선박 3척을 투입해 FAL을 공동 운항한다.

총 10척의 선박이 FAL을 운항하면 연간 약 4만~5만TEU를 광양항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취항항로로 지적돼왔던 유럽 등 원양 항로 서비스 개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프랑스 선사인 CMA-CGM은 선복량(선사 소속 선박이 실을 수 있는 총 화물량) 기준 세계 3위로, 다른 대형 선사들의 유럽항로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양=김충호기자 chkim@

## 소득세 1천만원 넘으면 분납 가능

### 광주지방국세청

올해부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별도의 신청없이 분납할 수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기주)은 12일 올해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5만5천명에게 다음달 1일까지 중간예납을 마치도록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올해부터 납세협력비용 축소 차원에서 중간예납 분납신청제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을 넘는 경우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 기일은 다음달 1일까지지만, 분납 대상자의 경우 분납분 납세고지서는 내달 22일까지 별도로 발송되며 분납분은 내년 1월14일까지 내면 된다.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지만 ▲이자·배당·근로·연금 소득과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 예술가 및 프로운동선수 ▲보험모집인 ▲중간예납세액 20만원 미만 소득자 등은 제외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생필품, 전통시장이 마트보다 19% 싸다

최고기나 쌀 등 주요 생필품을 전통시장에서 사면 대형마트보다 19%가량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세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의뢰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국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각각 9곳의 주요 생필품 36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의 가격은 평균 16만7천356원으로 대형마트의 20만4천695원보다 18.2% 낮았다.

조사대상 품목은 수산물류(5종), 육류(4종), 곡류(3종), 과일류(2종), 야채류(10종), 가공식품류(9종), 생활용품류(4종) 등이었다.

품목별로 육류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8.5%나 싼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가격차이를 보였다.

이어 야채류(26.9%), 과일류(19.2%), 생활용품류(14.6%) 등의 순이었다.

연남뉴스

## 광양제철소 윤경학 부장 에너지 절약 총리 표창



포스코 광양제철소 윤경학 에너지 부장이 지난 7월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0회 에너지절약 촉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008년 에너지절약 유공자로 선발된 윤경학 부장은 지난 2003년부터 부생가스를 발전연료로 활용하는 9호 발전설비 및 코크스 석탄건식소화(CDQ) 설비 등 에너지절약설비의 신설을 통해 총 2천300여원을 절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이광형 강진부군수, 이장환 광주신세계 대표 등이 12일 특산물전 오픈식이 끝난 뒤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황금닭·청자 30% 싸게 팔아요"

### 광주신세계 '강진 특산물전'

광주신세계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지역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제 7회 청자골 강진군 향토 특산물전'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강진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200여가지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을 엄선, 시중가격보다 10~30% 싸게 판매한다.

행사기간 동안 강진 진미·황금닭·토하젓·한과·강진 청자 등 강진 최고의 특산품을 선보이며, 특히 봉황쌀·벌치젓·표고가루·청세주 등은 50% 할인된 가격에 한정판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은행사로 농특산

물 3만~5만원 구입고객에게는 강진쌀(500g/1kg) 1포를 증정한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총 매출액의 1%를 강진군 인재육성기금으로 기탁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진행된 제 6회 강진군 특산물전에서는 총 5억 8천만원의 실적을 올려 매출의 1%인 580여만원을 인재육성기금으로 기탁한 바 있다.

이장환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역내 우수한 상품을 발굴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질 좋은 상품을 값싸고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61 / 010-722-0100

1025530-9999